

마하쉬트라주, 印 불교 중심지 급부상

뿌네 대학에 불교학과 · 빠알리어과 설치 아잔타 사원 등 유적 많고 불자 20% 달해

인도의 경제수도 뭄바이(Mumbai). 마하쉬트라주의 수도 뭄바이(파거)의 북베이는 인도에서 가장 분주한 국제공항과 항구를 지니고 있는 명실공히 인도 최대의 관문이자,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인도의 최대 중심지이기도 하다.

마하쉬트라주는 인도의 대표적 유적인 아잔타 석굴사원군과 엘로라 석굴사원군으로도 유명하다. 특이하게도 불교, 힌두교, 지인교 유적이 혼재해 있는 엘로라 석굴사원군은 마치 종교전시관처럼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일반적으로 뭄비니(현재는 네팔 영토)·부다가야·녹야원·쿠시나가라 등 인도불교 4대 성지가 위치한 주 불교세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인도에서 불교세가 가장 강한 곳은 마하쉬트라주다. 마하쉬트라주의 불교 인구는 주 인구의 20%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도 인구 중 불교 인구가 0.7%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이렇게 마하쉬트라주에 불교인이 많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불가촉천민 출신으로 불가촉천민 지위향상에

앞장섰던 암베드카가 마하쉬트라주 출신으로,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로 개종하면서 암베드카와 함께 불교로 개종한 인도인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잔타와 엘로라 석굴사원 외에 뿌네(Pune) 근방에만도 수많은 불교석굴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위빠사나 수행센터의 총본산이 이곳 마하쉬트라주의 이갓뿌리(Igatpuri)에 위치해 있다. 마하쉬트라주는 인도에서 불교의 중심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동양의 옥스퍼드라 불리는 마하쉬트라주 뿌네의 '뿌네대학'에 올해부터 빠알리어과가 독립 학과로 운영되고, 암베드카와 불교를 배울 수 있는 불교학과도 신설된다.

대학 측은 이미 산스크리트어과의 학과장을 빠알리어 전공 교수로 교체했다. 빠알리어가 부처님의 경전 언어임을 감안하면 빠알리어과 신설은 불교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빠알리어는 산스크리트어와 지방언어과에 포함된 형태로 강의가 이뤄졌었다. 여기에 불교학과가 신설되면



뿌네대학 전경. 뿌네대학은 올해부터 빠알리어학과와 불교학을 신설해 불교학 활성화에 나선다.

불교학 연구가 활성화돼 인도불교에도 저지 않은 파급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뿌네대학은 이와 관련해 10월 경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정규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빠알리어와 불교학 강좌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뿌네대학은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스님들을 교수로 초청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빠알리어과와 불교학과를 위한 새로운 건물을 건축 중이며, 내년 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런 일련의 계획은 단순히 학교 차원이 아닌 마하쉬트라주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정부가 불교를 부흥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뿌네가 인도를 대표하는 학문의 중심지 중 한 곳이자, 미래 인도의 IT 중심도시로 각광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계획은 의미가 크다. 마하쉬트라주는 이제 인도불교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하대경 통신원

中 소림사 '비방약' 상품화된다

허난성 중의학원과 생산계약

중국 허난(河南)성 송산 소림사가 세계 의약품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소림사 방장 쓰웅신 스님은 7월 28일 중국 대표 신문중 하나인 <국제재선(國際在線)>과의 인터뷰를 통해 "허난성 중의학원과 정식 계약해 소림사 승려와 수련생들을 의약 제조 과정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의학원에 위탁 교육을 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소림사 전통 고유 비방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공동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 최고의 무협 소설가 진웅(金庸)의 소설에 등장하는 '환혼탕(還魂湯,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약)' 과 소설 속의 상처치료 명약인 '금강대력환(金剛大力丸)' 도 상품화돼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소림사는 지난해부터 자체 제조한 약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적으로 판매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생산량을 대폭 늘려 본격적인 의약품 사업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제재선> 보도에 따르면 "소림사에는 오래전부터 각종 비방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특히 환혼탕의 경우 정신이 혼미해 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다"고 소림사의 한 관계자가 주장했다.

금강대력환에 대한선 윈난(雲南)성의 상처 치료제인 '백약(白藥)'과 성분비 비슷한 것으로, 무술 훈련 중 골절상이나 찰과상을 입은 승려들에게 주로 쓰던 약으로 알려져 있다.

소림사는 1998년 '소림사 실업발전유한공사'라는 회사를 설립, 해외 무술 공인 등으로 큰돈을 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제작사를 세우고, 자체 상표도 100개 넘게 등록하며 사업을 확장해 왔다. 해외의 50여 개 도시에 소림사 분원을 내 그동안 수만 명의 수련생을 배

출하기도 했다. 이런 소림사에 대해 지나치게 상업성을 추구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뉴질랜드 남극정사 수선화 수확 한창

수익금 모아 불사에

뉴질랜드 남극정사가 위치한 오글랜드는 지금 봄을 맞고 있다. 한국의 3월쯤이다. 봄이 되면 남극정사 화원은 수선화로 수놓아진다. 올해도 변함없이 희고 노란 꽃들이 피어나 남극정사 식구들의 일손을 바쁘게 한다.

남극정사 신도들은 수선화를 잘 가꾸어서 내다팔고 그 수익금을 불사금으로 쓰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남극정사는 오글랜드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65헥타르의 수선화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매년 수선화를 수확해 2만불 정도

의 수입을 올린다. 올해는 특히 큰법당, 공양간, 요사채 등을 세우기 위해 불사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터라 수선화 판매 수익금이 더욱더 절실하다.

신도들은 매주 일요일 법회가 끝난 뒤 수선화 꽃을 따기 위해 공동운력을 한다. 평일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2개조로 나누어 노력봉사하고 있다.

이곳에 사는 한국 불자들은 부부 모두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 귀한 상황이지만 자력으로 불사금을 마련하는 기쁨에 오늘도 구슬땀을 흘린다.

뉴질랜드=보리안 통신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암울한 티베트 민족의 앞날

급년 7월 1일 중국 칭하이(青海) 성과 티베트 수도 라사를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었다. 이 철도는 해발 4,000m가 넘는 지역으로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놓인 철도'로, "앞으로 티베트 개발과 관광 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졌다.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특급 관광 열차를 타고 24시간이면 라사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니 '티베트 관광 산업'이 성장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철도 개통이 가져올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다. 기껏해야 "중공 훼손 등 부작용 우려"("한국일보" 2006. 5. 2)와 같이 환경 훼손을 걱정하는 정도이지, 티베트 전통의 파괴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자주권 회복의 불확실성 등

그런데, 이처럼 불편하기만 했던 '인도-중국' 사이의 관계가 최근 들어 바뀌고 있다. 중국의 영문 일간지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 7월 20일자에 따르면, 당(唐) 시대 인도로 구법(求法) 순례를 다녀온 현장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중국-대만 합동 순례단'이 시안(西安)을 떠나 인도로 출발하였다.

순례단의 출발 기념식장에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성화이(聖輝) 스님이 "이번 여정은 중국과 인도 사이의 긴밀한 관계와 문화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촉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한 데에서도 쉽게 읽힐 수 있듯이, 이 순례단의 행보는 순수한 불교 신앙의 차원을 떠나 정치 외교적 배경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강대국의 외교 게임에 이어지는 자주권 회복의 불확실성 등

칭장철도 개통으로 한족 이주 · 전통 파괴 가속 中-印 관계 개선... 자주권 회복 더 힘들어져

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다.

전근대 왕조 시대 이래로 역대 중국 정권이 주변 이민족에 써온 정책은, 한족(漢族)을 대상으로 이주시키는 '사민(徙民)' 정책이었다. 1949년 공산 정권 수립 후 이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서북부의 '신지양(新疆)위그르 자치구' 같은 곳에도 이미 한족이 반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장애가 많았던 티베트의 대량 이주도 이 칭장(靑藏) 철도 개통과 함께 난관이 사라진 셈이다. 반대로, 티베트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앞날을 어둡게 하는 '나쁜 소식'이

들림없을 것이다. 중국의 침입으로 나라를 잃은 티베트 민족이 망명 정부를 수립하고, 전통 문화와 종교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웃 강대국 인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수십 년 동안 '불편한 관계'로 지내왔다. 국경 충돌이 빚어진 적도 자주 있었고, 남아시아 지역의 맹주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인도가 티베트 망명 정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티베트 난민들을 위한 정착지를 인정해주었던 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이었다.

장에서는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 없다.

1972년, 그때까지 '죽(竹)의 장막'이라고 불리던 중국의 문을 열게 한 것은 미국 탁구 대표단의 베이징 친선방문과 그에 이어지는 '중미(中美) 수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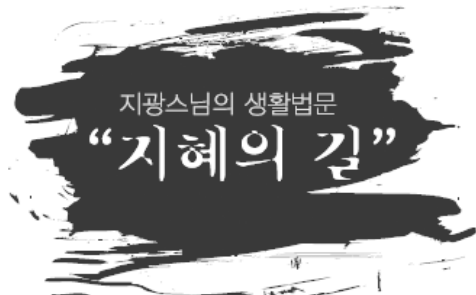
이번 '현장 프로젝트'가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티베트의 앞날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떨치지 어려운 상황이 인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7월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에 거주하는 티베트 난민 6,000여 명이 어렵게 장만한 터전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새삼 나라 잃은 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인도 정부에서 도로확장 등을 이유로 들면서 다른 곳에 대체 정착지를 마련해준다고 하지만, '현장 프로젝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일 또한 티베트 민족의 앞날을 어둡게 보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

대한제국 말, 주변 강대국들의 밀약(密約)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상실한 쓰러린 역사 경력이 있는 우리로서는 '중-인 관계 개선'과 더불어 더욱 불안해지는 티베트 민족의 상황이 결코 '강 건너 남의 집에 난 불'일 수 없다.

불교방송 디지털 포교 CD 시리즈 1. 2

"부처님 말씀, 이제 당신의 집으로 초대 하십시오!"



기획 · 제작 : 불교방송 문화사업단
BBS 02)706-3502~5
능인선원 02)577-5800
정가 : 70,000원

겸익스님 · 선수대사 · 원광법사 · 아도화상 · 득통화상



겸익스님 : 윤청광 극본, 박용기 연출/35회
선수대사 : 박서림 극본, 박용기 연출/70회
원광법사 : 윤청광 극본, 박용기 연출/42회
아도화상 : 윤청광 극본, 박용기 연출/49회
득통화상 : 박서림 극본, 박용기 연출/63회

기획 · 제작 : 불교방송 문화사업단
보급처 전화 : 02)706-3502~5
정가 : 160,000원

한국불교사의 큰 발자취를 남기신 고승대덕스님 5분의 행장을 드라마로 역어 절찬리에 방송된 "고승열전"을 CD로 만들어 보급하고자 합니다.

BBS 불교방송 www.bbsfm.co.kr

※ 디지털 영상 및 음반 제작을 원하시는 스님 또는 사찰에서는 불교방송 문화사업단 연락처(02-705-5301)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